

#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少考

尹 鍾 周

서울女子大學 教授

## <目 次>

- I. 序
- II.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史料
- III. 史料에 의한 三國時代까지의 戶口
- IV. 우리나라 古代人口의 推定
- V. 結 言

### I. 序

한 나라의 特定한 學問의 領域에 대한 歷史的 考察은 한 學問이 그 基盤을 다지고 發展을 꾀하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한 意味를 지니는 것이 라 하겠다. 그 까닭에 모든 學問은 該當領域에 관한 理論뿐만 아니라 學史를 學問의 基本的인 構成領域의 하나로 삼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人口學의 研究는 西歐의 여러 理論과 특히 눈부신 發展을 보이고 있는 人口 統計學의 技法을 導入하여 50年代以後 提起되어 온 人口의 急速한 量的 成長問題 및 60年代以後의 急速한 經濟成長과 産業化로 인한 人口再配分問題등 우리 社會의 現實問題에 그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는 實情아래 있다. 社會現象은 그 어느 意味에서 規範的 現象임으로 우리의 人口現象에 대한 說明은 西歐의 理論을 빌어져 우리의 價値·規範體系와의 關聯에서 修正補完함과 아울러 人口學을 韓國의 學問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人口에 대한 歷史的 考察을 試圖하여 이를 體系化시키는 作業은 우리나라에서의 人口學發展에 必須的인 課題의 하나이라고 생각 된다.

人口現象은 本質的으로 集團現象이며, 不斷히 그 量과 質이 變化하고 있음으로 人口現象에 대

한 考察에 있어서는 一定한 時間(時期) 및 空間(地域)의 概念과 이러한 概念아래 研究되어야 할 人口에 관한 記錄 내지는 統計資料가 있어야 한다. 人口研究를 위한 이와 같은 資料는 原則的으로 時代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不完全한 것이 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歷史처럼 戰爭을 통한 數많은 分裂과 統合 그리고 많은 外侵을 받아온 狀況아래서는 모든 記錄이 적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

人口에 관한 情報를 얻는 戶口調査는 壯丁의 兵役 및 賦役 그리고 租稅 등의 目的으로 옛부터 있었으나, 編戶方式·口(人口數)의 集計基準 등이 時代에 따라 相當한 差異가 있으며 더욱이 前述한 바와 같이 時間과 특히 空間(地域)概念을 分明히 確認할 수 없기 때문에 現代人口統計學의 接近이 極히 어려운 實情아래 있다.

또한 각 時代의 人口現象에 대한 研究는 그 時代의 人口에 관한 記錄뿐만 아니라 當時의 政治的·社會·經濟的 知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點에 또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點에서 現代의 人口調査가 이루어진 日帝以前時代의 우리나라 人口에 대한 考察은 主로 國史學者들에 의해서 各時代의 史料속에 있는 人口와 관련된 記錄을 土臺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李朝實錄의 地理志 및 이 時代의 戶籍大帳등 史料가 豊富한 李朝時代의 研究가 많다.<sup>1)</sup>

1) 趙弼濟, “韓國의 人口統計-李朝時代以前,”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統計情報, 1961年 6,7月號;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 東京法政大出版部, 1972; 朴時亨, “新羅帳籍의 研究,” 歷史科學, 1957年 6號; 李樹健,

## II.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史料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情報은 「三國遺事」·「三國史記」·「東史補遺」 등과 같은 現存하는 우리나라 史料와 中國의 二十五史 가운데서 韓國史에 該當하는 部門의 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記載되어 있는 人口에 관한 大部分의 記錄은 二十五史에서 引用된 것이다.

우리나라 古代의 人口史料중 特記할만한 것은 1933年 日本의 東大寺 正倉院에서 發見된 現在의 忠北 淸州附近에 있었던 統一新羅前期(景德王 14年 西紀 755年)의 4個 村落에 관한 村籍薄資料이다. 이 資料는 이 時代에 이미 3年마다 行해지는 村落單位의 行政統計制度가 있었음을 밝혀주는 貴重한 資料로서 村籍薄속에는 ① 村落名과 村域 ② 戶數 ③ 口數(人口數) ④ 牛馬數 ⑤ 土地面積 ⑥ 桑·柏·秋의 樹木數 ⑦ 지난 3年間에 있었던 戶口數의 性別 年齡 6區分別 增減 ⑧ 牛馬의 增減등에 관한 情報가 記錄되어 있다. 이들 資料를 利用하면 ① 性別·年齡階級別 人口數 및 그 構造 ② 戶當平均口數 ③ 지난 3年間의 出生·死亡·移動 등에 의한 人口動態件數 ④ 特定村落의 人口成長推移등 오늘날의 人口統計學의 概念을 利用한 基本的인 人口分析이 可能하다.

아래로 내려와 高麗時代에도 戶口에 관한 行政統計는 있었으나 現在 發見되지 않고 있으며, 人口와 관련된 斷片의인 記錄들은 이 時代의 史料인 「高麗史」·「高麗史節要」 및 中國의 二十五史속에 있는 「高麗傳」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高麗朝에 있어서는 거듭된 戰亂과 私田의 增加로 인하여 兵役·賦役 및 租貢이 매우 甚하였으므로 戶口調査에 있어서 洩落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末인 恭愍王 20年(1371年)에는 그 간의 戶籍法이 여러가지 混亂과 變遷으로 本來의 모습과 크게 달라져 있었으므로 壬子年을 契機로 班常別로 區分해서 戶籍을 作成토록하는 동시에 2年마다 戶口를 再調査한 後 上

納토록 하였다.<sup>2)</sup> 그러나 高麗朝의 戶口調査는 그 全期를 통해서 매우 不完全한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時期의 人口數를 推定할 수 있는 間接的 資料로는 田畝의 結數記錄을 土臺로 어느 程度의 推計가 可能할 것은 생각되어 이 時期에 대한 社會經濟史의 研究가 期待된다.

또한 韓國의 人口學史의 立場에서 매우 興味로운 事實의 하나는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 넓히 쓰이고 있는 「人口」와 「老人」이라는 概念이 高麗史속에서 비로서 發見된다는 點이다. 卽 高麗史 卷十六에 아래와 같은 句節들이 나타나 있다.

「(庚戌年) 十二月乙酉遣左司郎中金瑞如金請免追索保州投入人口」

「(癸丑年) 冬十月丙午親饗年八十以上老人及孝順節義鰥寡孤獨篤癡疾者賜物有差」

즉 高麗 仁宗 8年(1130年)「12월에 左司郎中 金瑞을 金에 보내어 保州地方에 投入한 人口의 追索을 免할 것을 請하였다」라는 句節에서 처음으로 「人口」라는 낱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仁宗 11年(1133年)「겨울인 10월에 王은 親히 나이 80以上인 老人과 孝子·順孫·節婦·義夫·홀아비와 寡婦·孤獨한 者·심한 不具者와 病者들에게 饗宴을 베풀고 膳物을 하되 差等이 있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그 以前까지의 史料에서는 人口를 「口」로 그리고 老人을 「老」로만 記錄되어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人口」와 「老人」이라는 概念이 쓰여지고 있다.

## III. 史料에 의한 三國時代까지의 戶口

우리나라 古代의 家口數와 人口數에 대한 斷片의인 記錄들은 前記한 中國의 二十五史 史料속에 나타나 있다. 例를 들어 三國遺事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의하면

「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라하여 桓雄이 우리 三千을 거느리고 太白山 山頂에 있는 神壇樹아래 내려왔다하는 句節이 있고

“朝鮮初期戶口研究,” 嶺南大論文集 人文科學篇 第5輯, 1971; 崔在錫, “高麗後期 家族의 類型과 構成,” 韓國學報 3號, 1976; 金貞培,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史研究 26號, 1979.

2) 趙弼濟, “韓國의 人口統計—李朝時代以前,”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統計情報, 6·7月號, 1961.

三國遺事의 魏滿朝鮮條에도 前漢書朝鮮傳을 引用하여

「燕人魏滿亡命 聚黨千餘人 東走出塞渡涇水居奏故空地上下障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儉以兵威降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

라고 記錄되어 있다. 卽「燕人 魏滿이 亡命하되 우리 千餘名으로 徒黨을 지어 東으로 달려 塞를 나와 涇水를 건너 秦나라의 옛 空地인 上下障에 居하며 暫次 眞番·朝鮮의 蠻夷와 燕·齊의 亡命者들을 支配하면서 王이 되어 王儉에 都邑하였다. 兵力으로 이웃 小邑들을 侵入하여 降伏을 받으니 眞番과 臨屯이 모두 와서 服屬하니 地域이 四方 數千里가 되었다」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러한 記錄들은 우리나라 建國初(西紀前 2~3世紀)의 多분히 神話的인 史料로 보아지며 이 時期 人口推定의 根據가 되는 것은 아니다.

三國遺事 卷一の 七十二國條는 아래와 같이 記錄되어 있다.

「通典云朝鮮之遺民分爲七十餘國皆地方百里後漢書云西漢以朝鮮舊地初置四郡後置二府法令漸煩分爲七十八國各萬戶」

卽, 通典에 의하면 朝鮮의 遺民이 七十餘國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各國의 넓이가 四方 百里이며, 後漢書에 의하면 西漢이 朝鮮舊地에 처음으로 四郡을 두었다가 後에 二府를 두었는데 法令이 점차 번거로워져 七十八個國으로 나누었는데 各己 萬戶라고 記錄되어 있다.<sup>3)</sup> 또한 三國遺事의 著者인 一然은 이에 註를 加하여 西쪽의 馬韓에 54個邑, 東쪽의 辰韓에 12個邑 그리고 南쪽의 下韓에 12個邑이 있어 各己「나라」(國)라고 불렀다는 記錄이 있다. 이와 관련된 記錄으로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傳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馬韓…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弁辰韓 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卽, 馬韓에는 50餘個의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는 萬餘家口로 그리고 작은 나라는 數千家口로 되어 있으며 總家口數는 十餘萬戶가 되고, 下韓과 辰韓은 합해서 24個國이며 大國은 4~5家口로 그리고 小國은 6~7百家口로 되어 있으며 總家口數는 4~5萬戶라는 것이다.

한편 前漢書 地理志를 보면 漢武帝 元封 4年(西紀前 107年)에 設置한 漢四郡의 하나인 玄菟郡은 45,006戶에 人口가 221,845名이 있었다고 記錄되어 있으며, 後漢書, 二十三郡國志에는 玄菟郡에 6個城이 있고 1,594戶에 人口는 43,163名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한 前記한 前漢書에는 樂浪郡이 武帝 元封 3年(西紀前 108年)에 設置되었으며 62,812戶에 人口가 406,748名이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後漢書에는 이곳에 18個城이 있고 61,492戶에 人口가 257,050名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三國時代의 戶口數를 밝히는 記錄으로는 三國遺事의 高句麗條에 「高麗全盛之日二十一萬五千八百戶」(高句麗의 全盛時에 210,508戶가 있었다)라는 句節이 있으며, 舊唐書(五) 高宗 乾封 3年(西紀 668年) 癸巳條에는 高句麗가 滅亡할때 民戶數가 모두 697,000戶가 되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百濟와 관련해서는 三國遺事의 下韓·百濟條에 「下韓百濟全盛之時十五萬二千三百戶」라고 나와 있으며, 同書의 卷一 太宗春秋公條에는 「其國半有五部三十七郡二百城七十六萬戶」(百濟는 原來 5部 37個郡에 城이 200個로 民戶數가 76萬이다)라고 記錄되어 있다.<sup>4)</sup> 또한 唐將 蘇定方이 세운 唐平百濟國碑銘속에는 「戶二十四萬人口六百二十萬」이라는 句節이 있다.

新羅의 戶口數와 관련해서는 우선 三國遺事 卷一の 辰韓條에 아래와 같은 句節이 있다. 또한

「新羅全盛之時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新羅全盛期 서울에 178,936戶 1,360坊 55個里 35個金入宅이 있었다)<sup>5)</sup>

3) 李丙巖은 通典에 이러한 記事가 없으며, 後漢書에도 二府를 두었다는 記錄이 없는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 (李丙巖譯註, 原文兼譯註 三國遺事, 廣書出版社, 1982, p. 185.)

4) 新·舊唐書의 百濟傳에는 百濟滅亡當時(西紀 660年)의 全國戶數가 76萬戶라고 記錄하고 있다.

5) 같은 內容의 記事로 三國遺事卷5 念佛師條에는 「城中三百六十坊十七萬戶」라고 記錄되어 있는데, 李丙巖은 後世의 例로 보아 坊은 里로 戶는 口로 그리고 里는 坊으로 보아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李丙巖, 前揭書, p. 193)

卷二의 駕洛國記條에는 「九千者是酋長總百姓凡一百戶七萬五千人」(酋長인 아홉사람의干들이百姓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數는 九一百戶에 七萬五千人이다)라는 句節이 있다. 前記한 日本의 東大寺 正倉院에서 發見된 新羅時代(8世紀 中葉)의 村籍簿속에 들어 있는 4個 마을에서 얻어진 戶口數는 모두 43戶에 人口數는 442名이다.

이 外에 間接的 資料로서 利用可能한 記事들로는 田畝의 結數, 人口移動數, 兵力數에 대한 記錄 등이 여러 곳에서 發見된다. 例를 들어 三國遺事 卷二의 聖德王條에 보면 「神龍 2年 丙午(西紀 706年)에 凶年이 들어 다음 해 正月 初一日부터 七月 三十日까지 救民을 위하여 穀物을 나누어 주되 한 사람에 一日 三升씩으로 하였는데 일이 끝나서 計算해보니 三十萬五百石이었다」라는 記錄이 있고,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第六 崔致遠項을 보면 「東海 건너에 三國이 있으니 그 이름이 馬韓·下韓·辰韓이다. 馬韓이 곧 高麗이고 下韓이 百濟이며 辰韓이 곧 新羅이다. 高麗·百濟의 全盛時에 強兵이 百萬이었다」라는 句節이 있다. 移動·投降·侵入 등 局部的인 戶口數에 관한 記錄은 특히 三國史記의 到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V.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考察

##### 1. 史料의 分析上의 問題

前節에 提示된 여러 史料에 나타난 記錄들은 大體로 西紀前 2世紀頃부터 8世紀 中葉까지의 三韓時代·三國時代 및 統一新羅初期에 이르는 우리나라 建國初부터 千年에 이르는 戶口數에 관한 資料들이다. 이들 資料에서 注目해야 할 事實의 하나는 唐平百濟國碑銘과 관한 史蹟이나 新羅村籍簿의 記錄으로 보아 이 時期에 戶 및 口數에 대한 行政統計가 分明히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三國遺事나 三國史記인 우리나라 史書에는 戶數에 관한 記錄은 있으나 口數(人口數)에 대한 記錄이 없다는 點이며, 口數에 대한 資料는 오히려 漢書와 같은 中國 史料에서 發見되고 있다. 이 點과 관련해서 李丙燾가 三國遺事의 卷一 辰韓條 및 卷五의 念佛師條에서 加註하여 戶를 口로

보아야한다는 見解는 이 時期의 人口分析에 主要한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時期의 人口分析에서 逢着하는 基本的인 難點은 前記한 여러 史料들이 記錄해놓은 ① 戶口數의 記錄時點 ② 이들 戶口數가 實在했던 各國의 地域的 區分 ③ 記錄上의 戶와 口의 問題 등을 明確하게 規定하는 일이다. 이러한 規定이 實存하는 史料에서는 現實的인 어려움이 있음으로 分析에 있어서 몇몇 假定을 設定하여 매우 概括的인 考察이라도 해보는 수 밖에 없다.

우선 地域과 관련해서는 地域名 내지 國名이 史料에 따라 衛滿朝鮮·漢四郡·馬韓·高句麗·下韓百濟·辰韓·新羅 등으로 多樣하며 이것은 時間의 變遷에 따른 이들 나라의 興亡盛衰를 말해주는 동시에 無數한 領域의 變動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可能한 概括的인 分析方法의 하나는 戶口數記錄이 나오는 史料속에 있는 國名을 三國時代의 新羅·高句麗 및 百濟에 代入시켜서 考察하는 일이다. 時點과 관련해서는 史料속에 나타나 있는 戶口數記錄이 어느 時期의 戶口數를 말해주고 있는가를 究明하여야 한다. 史料속의 記錄은 ① 特定史書의 作成時期와는 다르며 ② 記錄속에 例를 들어 百濟滅亡時와 같이 特定事件을 表現해주는 記錄이 붙어 있지 않은 限 正確한 年度를 밝히기 어려우며 ③ 따라서 大略的인 時期라도 設定하는데서 戶口數資料間의 時系列的인 比較分析이 可能하다.

戶와 口에 관한 問題는 前述한 李丙燾의 戶는 口로 보아야한다는 見解外에도 金貞培가 이 時期 三韓社會의 「國」(나라)의 概念을 君長社會(chiefdom)로 規定하고 그 規模를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傳에 記錄되어 있는 馬韓 및 弁辰韓의 總戶數와 國數를 連結시켜서 推定하고 있는데 그는 總戶數를 「나라」數로 나누고 戶當平均口數를 5名으로 假定하여 當時의 君長社會인 「國」이 平均 2千戶에 人口 1萬名 程度일때 成立하던 當時의 「國」의 넓이는 오늘의 面程度의 地域으로 보고 있다.<sup>6)</sup> 이러한 史學者들의 見解는 ① 戶當平均口數의 合理的 假定 ② 戶로부터의 口數算出 ③ 「國」概念의 適用 등을 통해서 이 時期 人口分析의 可能性을 높여주고 있다.

6) 金貞培,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史研究會, 韓國史研究(26), 1979, pp. 1-15.

表 1. 利用된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戶口史料  
Table 1. Historical records on Korean population in ancient era.

年 度	戶 數	口 數(名)	戶 當 口 數 (名)	國 名	史 料	備 考
B C 2333		3, 000		開國初	三國遺事卷1 古朝鮮條	魏書에서 引用(建國神話)
B C 194	62, 812	406, 748	6. 5	衛滿朝鮮	三國遺事卷1 魏滿朝鮮條	漢書 朝鮮傳에서 引用
	45, 006	221, 845	4. 9	樂浪郡 玄菟郡	漢書 卷28 地理志 第8下	漢武帝元封 3年開(B C 108) 漢武帝元封 4年開(B C 107)
	10, 000 <sup>1)</sup>	75, 000	7. 5	駕洛(新羅)	三國遺事 卷2 駕洛國條	首露九村에 推戴된 해(AD 42-後漢光武帝 建武18年)
	1, 594 <sup>2)</sup>	43, 163	27. 1	玄菟郡	後漢書 卷23 郡國誌	後漢安帝 永初元年(AD 107)
	61, 492	257, 050	4. 2	樂浪郡	後漢書 卷29 郡國誌 河南尹條	後漢順帝 永和 5年(AD 140)
	100, 000(十萬餘戶)			馬 韓	三國誌 魏志 東夷傳 韓傳	AD 3世紀 中葉(王國으로서의 體系를 갖은 時期)
	45, 000(4~5萬戶)			弁辰韓		AD 4世紀 後半(王國體系를 갖은 時期)
	540, 000 <sup>3)</sup>			馬 韓		馬韓 54個國
	120, 000			辰 韓		辰韓 12個國
	120, 000			弁 韓		弁韓 12個國
	210, 508			高句麗	三國遺事 卷1 高句麗條	高句麗全盛時(長壽王代 AD 412~491)
	152, 300			百 濟	三國遺事 卷1 下韓百濟條	百濟全盛時(聖王代, AD 523~551)
	178, 936			新 羅	三國遺事 卷1 辰韓條	新羅全盛時(眞興王代, AD 540~576)
AD 660	760, 000			百 濟	三國遺事 卷1 太宗春秋公條	新舊唐書百濟傳, 百濟滅亡時
	240, 000	6, 200, 000	25. 8	百 濟	唐平百濟國碑銘	定林寺趾塔碑銘(金石文總覽)
AD 668	697, 000			高句麗	舊唐書 卷五	高句麗滅亡時(統一新羅)
AD 755	43(41)	442(391)	10. 3(9. 5)	新 羅	新羅村菑藪(現 淸州附近)	統一新羅前期(景德王 14年)

1) 三國遺事卷2 駕洛國條에 記錄된 「總百姓凡一百戶」의 百을 萬으로 看做한 것임.  
 2) 李丙晝는 戶數에 比해서 口數가 큰 點을 指摘하고 있으며 戶數記錄에 誤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李丙晝,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 178).  
 3) 三韓의 戶數는 三國遺事卷1 七十二國條에 記錄된 「七十八國各萬戶」와 一然이 加註한 三韓別邑(國)數에 戶數 萬을 合한 것임.

## 2. 人口推定을 위한 假定

前章에 提示된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史料에 記載된 戶 및 口數와 그 地域(나라), 이들이 記錄되어 있는 史料名 그리고 記錄된 戶나 口數를 大略的인 時期別로 羅列해 보면 表 1과 같다.

表 1에 提示된 資料를 土臺로 우리나라 古代의 戶口數를 各時代別 및 나라別로 推定하는데 있어서 設定한 ① 時期 ② 地域 및 ③ 戶 또는 口에 대한 假定은 다음과 같다.

첫째, 時期에 대한 假定은 두 時期間의 人口를 比較하여 人口成長 및 人口增加率을 算出하는데 必須的인 것이나 前記한 史料가운데 時期에 대하여 言及한 史料는 거의 없다. 따라서 記錄된 戶口數에 대한 時期를 戶口數와 관련된 餘他의 記錄을 통해서 나름대로 設定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開國初(西紀前 2333年)와 西紀前 194年의 衛滿朝鮮時의 傳說的이고 斷片的인 口數에 대한 記錄은 考察의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① 紀元前 1~2世紀의 樂浪郡과 玄菟郡의 戶口數는 漢書 卷 28 地理志 第 8 下에 記錄되어 있는 이들 郡의 設置年度인 西紀前 107年(漢武帝 元封 3年)과 西紀前 108年(武帝 元封 4年)으로 假定했으며, 後漢書에 記錄되어 있는 玄菟郡과 樂浪郡의 戶口數는 玄菟郡의 경우 後漢書 卷23 郡國誌五 第23 幽州에 記錄되어 있는 後漢 安帝의 即位年인 永初元年(西紀 107年)의 것으로 하고 樂浪郡의 경우는 後漢書 卷29 郡國誌 河南尹條에 記錄되어 있는 後漢順帝 永和 5年(西紀 140年)의 것으로 假定하였다. ② 駕洛國의 戶口數는 始祖 首露가 九村에 推戴된 西紀 42年(後漢光武帝 18年)의 것으로 假定하였다. ③ 三韓時代의 戶口數에 대한 時期設定은 이들 나라가 王國으로서의 體系를 갖춘 時期로 假定하였다. 馬韓의 경우 이 時期는 西紀 3世紀 中葉으로 推定作業에 必要한 年度設定은 西紀 250年으로 하였으며, 弁辰韓의 경우는

이 時期가 西紀 4世紀의 後半으로 設定年度는 西紀 275年으로 하였다. ④ 三國時代의 戶口數記錄에 대한 時期假定에 있어서 高句麗全盛時는 長壽王代로 長壽王은 西紀 412~491年間의 80年間 在位했으며 人口推定을 위한 高句麗全盛時 年度를 在位最終年度인 西紀 491年으로 假定하였으며, 또한 高句麗滅亡時는 西紀 668年으로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年度이기도 하다. 百濟의 경우 全盛時는 聖王代(西紀 523~554年)로 全盛時年度를 西紀 554年으로 假定했으며 百濟滅亡時는 西紀 660年이다. 新羅全盛時는 眞興王代(西紀 540~576年)이며 全盛時年度를 西紀 576年으로 假定하였다(表 2 參照).

둘째로, 地域設定에 대한 假定은 「나라」의 概念을 利用한 戶口數의 地域(나라)間 比較에 있어서 ① 古朝鮮時代의 樂浪郡과 玄菟郡 地域을 三國時代의 高句麗地域으로 假定하였다. ② 古朝鮮時代의 駕洛은 三韓時代의 弁辰韓의 一部로 假定하고<sup>7)</sup> 弁辰韓을 三國時代의 新羅로 看做하였다. ③ 三韓時代의 馬韓은 三國時代의 百濟로 假定하였다.

셋째, 口數(人口數)를 算出하기 위한 史料에 記錄된 戶數資料 利用에 있어서의 假定은 ① 史料속에 戶數와 口數를 記錄한 資料는 原則적으로 그대로 利用하되 戶當口數의 概念에서 크게 問題가 되는 後漢書 卷23 郡國誌에 있는 玄菟郡의 戶口數는 口數를 戶數로 假定했으며 唐平百濟國 碑銘에 있는 戶口數는 戶數만을 百濟滅亡時의 것으로 假定해서 利用하였다. ② 史料속에서 戶數만 記錄되어 있는 資料들은 모두 口數로 轉換시켜서 利用하였다.<sup>8)</sup> ③ 三國遺事 卷1 辰韓條에 있는 新羅全盛時京中戶數를 新羅의 全國戶數로 看做하였다. ④ 戶數나 口數가 없는 資料의 戶口數를 算出하기 위해서는 戶當平均口數를 5.0名으로 假定하였다. 戶當平均口數를 5.0名으로 假定한 根據는 비록 駕洛 및 統一新羅前期 現淸州

7) 駕洛은 後에 新羅의 一部가 되나 이 時期(1世紀 前後)의 新羅地域에 대한 戶口數의 史料가 전혀 없어 人口推定에 어려움이 있다.

8) 이 時期 史料들의 戶數를 口數로 보아야 한다는 主張은 이미 李丙燾에 의해서 提起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三韓時代의 「나라」別戶數에 대한 記錄이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傳에 있는 馬韓 및 弁辰韓에 대한 戶數와 三國遺事卷1 七十二國條에 있는 「七十八國各萬戶」에 馬韓 54個邑 및 下辰韓 各 12個邑이라고 한 두가지 記錄이 있는데 三國遺事의 戶數를 口數로 假定하고 三國志의 戶數에 戶當平均口數를 5名으로 假定하여 口數를 算出하던 三國遺事의 戶數를 口數로 轉換시킨 것과 매우 近似한 值를 보이고 있다.

表 2. 우리나라 古代人口 推定을 爲한 戶口資料의 假定

Table 2. Assumptions of estimating the Korean population in ancient era.

時 代	年 度	國 名	戶 口 統 計 <sup>1)</sup>			備 考
			戶 數	口 數	戶當口數	
建 國 初	BC 2333	開 國 初		3,000		
古 朝 鮮	BC 194	衛滿朝鮮		1,000		} 漢武帝의 郡設置年度
	BC 108	樂浪郡	62,812	406,748	6.5	
	BC 107	玄菟郡	45,006	221,845	4.9	
	AD 42	駕洛	(10,000)	75,000	7.5	
	AD 107	玄菟郡	【43,163】 <sup>2)</sup>	(215,815)	(5.0)	
三 韓 時 代	AD 140	樂浪郡	61,492	257,050	4.2	} 王國體系를 갖춘 時期
	AD 250	馬韓	(108,000)	【540,000】 <sup>3)</sup>	(5.0)	
	AD 375	辰韓	(24,000)	【120,000】 <sup>3)</sup>	(5.0)	
三 國 時 代	AD 375	弁韓	(24,000)	【120,000】 <sup>3)</sup>	(5.0)	} 高句麗全盛時 百濟全盛時 新羅全盛時京中戶數 百濟滅亡時 高句麗滅亡時(統一新羅時)
	AD 491	高句麗	210,508	(1,052,540)	(5.0)	
	AD 554	百濟	152,300	(761,500)	(5.0)	
	AD 576	新羅	178,936 <sup>4)</sup>	(894,680)	(5.0)	
	AD 660	百濟	(152,000)	【760,000】 <sup>5)</sup>	(5.0)	
AD 668	高句麗	(139,400)	【697,000】 <sup>6)</sup>	(5.0)		
統一新羅	AD 755	新羅	43(41) <sup>7)</sup>	442(391) 10.3(9.5)		清州附近新羅村藉薄

1) 括弧內 數字는 모두 假定值임(굵은 括弧內 假定值에서 가는 括弧內數值가 導出되었음).

2) 玄菟郡의 口數를 戶口로 看做했음.

3) 三國遺事卷1 七十二國條의 78個國 各萬戶를 口數로 看做했음.

4) 三國遺事卷1 辰韓條의 新羅全盛時京中戶數를 全國戶數로 看做했음.

5) 三國遺事卷1 太宗春秋公條의 百濟民戶數 76萬戶를 口數로 看做했음.

6) 舊唐書卷5의 高句麗滅亡時戶數를 口數로 看做했음.

7) 括弧안의 數値는 같은 地域의 3年前 戶口數임.

附近的 村藉薄에 나타난 戶當口數가 各己 7.5名 및 10.3~9.5名으로 이보다 높으나 古朝鮮時代의 樂浪·玄菟兩郡의 戶當口數가 平均 5.2名으로 假定值(戶當平均口數)에 가까우며<sup>8)</sup> 時期는 다르나 17世紀末부터 20世紀初의 李朝時代의 戶當口數는 4.1~4.7名の 水準으로 假定值보다 낮다. 또한 三韓時代의 馬韓 및 弁辰韓의 戶數에 대한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傳에 記錄된 戶數와 三國遺事 卷1 七十二國條의 戶數의 資料에서 三國遺事의 戶數를 口數로 轉換하여 얻은 戶當口數가 5名線 인데서 戶當平均口數 5.0名の 假定으로 그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可用史料중 戶口數에 대한 記錄이 人口의 時系列的 分析에 있어서 妥當性이 없는 記錄들은 人口推定作業에서 除外하였다. 즉 西紀 107年の

玄菟郡 戶數(1,594戶)와 唐平百濟國碑銘의 戶口數記錄은 人口推定の 資料로 利用하지 않았다.

끝으로, 人口推定에 있어서 出生·死亡 및 移動과 같은 人口動態要因을 考慮하지 않다. 前述한 여러 假定을 前提로 한 우리나라 古代의 戶口數를 時代·年度 및 國別로 整理해 보면 表 2와 같다.

### 3. 우리나라 古代人口의 推定

前節에서 設定한 여러 假定에 따라 우리나라 古代의 戶口數를 推定해 본 結果는 表 3 및 表 4와 같다. 表 3은 여러 戶口記錄의 成長을 나타낸 것으로 前述한 여러 假定아래서의 記錄된 戶口數를 基礎로 이들의 年度間 年平均增減率을 算出した 것이고 表 4의 戶口數推定은 特定時 特定地域의 非合理的인 戶口數의 年平均增減率을 調整

9) 後漢書의 玄菟郡戶口數는 戶當平均口數의 算出에서 除外했음.

表 3. 우리나라 古代의 時代別 人口成長

時代	年代	高句麗			百濟			新羅			
		國名	戶數	戶數年平均增減率(%)	國名	戶數	戶數年平均增減率(%)	國名	戶數	戶數年平均增減率(%)	
古朝鮮	BC 107	樂浪·玄菟	107,818	-0.117 (214年) <sup>3)</sup>	馬	108,000	0.113 (304)	馬	10,000	0.472(0.263) <sup>4)</sup> (333)	75,000
	AD 42	樂浪·玄菟	104,824 <sup>2)</sup>		韓	108,000		(弁韓) 弁辰韓	(24,000) 48,000		(120,000) 240,000
	AD 250	樂浪·玄菟	104,824 <sup>2)</sup>		百	152,300		百	761,500		百
三韓時代	AD 491	高句麗	210,508	1,052,510	-0.233 (177)	百	百	百	百	百	百
	AD 554	高句麗	210,508								
三國時代	AD 576	高句麗	210,508	1,052,510	-0.233 (177)	百	百	百	百	百	百
	AD 660	高句麗	210,508								
	AD 668	高句麗	139,400	697,000							

1) 모든 年度間 年平均增減率은 雙阿平均임. 2) AD 107年 現在의 樂浪·玄菟郡의 戶口數는 AD 140年의 樂浪戶口數를 AD 107年 現在로 推計하여 AD 107年 現在의 玄菟郡戶口數에 合친 것임. 推計에 있어서 使用된 年平均減少率은 樂浪郡의 BC 108年과 AD 140年間(248年間)의 戶口數別減少率인 戶의 -0.0086%와 戶의 -0.185%를 適用했으며 그 結果 AD 107年 現在 樂浪郡의 戶數는 61,661 戶이며 戶口數는 273,165임. 3) 括弧內의 數値는 比較年度間의 數値는 比較年度間의 戶口數의 333年間的 年平均增加率임.

表 4. 우리나라 古代의 時代別 人口推定

時代	年度	高句麗(樂浪·玄菟)			百濟(馬韓)			新羅(馬洛·弁辰韓)			三國計 <sup>2)</sup>		
		戶數	年平均人口數	成長率(%)	戶數	年平均人口數	成長率(%)	戶數	年平均人口數	成長率(%)	戶數	年平均人口數	成長率(%)
古朝鮮	BC 107	107,818	628,593	-0.117 (214)	馬	108,000	0.113 (304)	馬	10,000	0.472(0.263) <sup>4)</sup> (333)	75,000		
	AD 42	104,824	488,980		韓	108,000		(弁韓) 弁辰韓	(24,000) 48,000		(120,000) 240,000		
	AD 250	104,824	488,980		百	152,300		百	761,500		百	0.657 (201)	0.657
三韓	AD 491	210,508	1,052,510	1,052,510	-0.233 (177)	百	百	百	百	百	百		
	AD 554	210,508	1,052,510									百	152,300
三國時代	AD 576	210,508	1,052,510	1,052,510	-0.233 (177)	百	百	百	百	百	百		
	AD 660	210,508	1,052,510									百	152,300
	AD 668	139,400	697,000										

1) 數値中 括弧內는 數値는 史料에서 利用한 實際戶口數와 年度間 戶口成長率(%)이며, 括弧內數値는 推算한 戶口數와 推算時假정한 戶口成長率(%)임.  
2) 各時代別 우리나라의 總戶口數를 推定한 것임.



해서 時代別 特定時期의 概括的인 戶口數를 提示한 것이다.

推定에 있어서 모든 比較年度間的 戶口數 增減率은 幾何平均으로 算出하였으며, 言及에 必要한 特定時期의 戶口數가 없을 경우는 이 時期 前後年度의 戶口數로 부터 期間中 戶口數의 增減率을 適用하여 外挿法 또는 補間法으로 推算하였다.

算出結果 表 3에서 얻어진 時代別 各國의 戶口數 增減趨勢의 特徵的인 傾向으로는 ① 各地域(나라)의 戶口數가 그 地域의 全盛時까지는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反面 ② 全盛時를 지나서 滅亡期에 이르면 減少傾向을 보이고 ③ 여러 時代를 걸친 戶口數의 增減傾向中 三國時代의 것이 가장 妥當하고 合理的인 傾向을 띄고 있는 事實 등을 들 수 있다.

人口推定에 있어서 基礎人口의(base population) 役割을 한 資料들은 高句麗地域의 경우 紀元前 107年頃 및 西紀 107年頃の 樂浪·玄菟 兩郡의 戶口記錄, 西紀 491年頃の 高句麗全盛時의 戶數 및 高句麗滅亡時의 戶數記錄들이며, 百濟地域의 경우는 西紀 250年頃(3世紀 中葉)의 馬韓戶數, 西紀 554年頃の 百濟全盛時의 戶數 및 百濟滅亡時의 戶數記錄이며, 新羅地域의 경우는 新羅全盛時의 京中戶數記錄뿐이다. 이들 資料가 基礎人口로서 利用된 理由는 이들을 中心으로 한 前後時期의 人口推定이 가장 合理的인 推定結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古代人口의 나라別 主要時期別 人口推定結果는 表 4와 같다. 이를 要約하면 ① 古朝鮮時代末頃인 西紀 100年頃の 우리나라 人口는 約 30萬戶에 150萬으로 推定되며 ② 三韓時代의 3世紀中葉 우리나라 人口는 約 37萬戶에 180萬으로 이를 나라別로 보면 高句麗가 136萬戶에 人口가 65萬이며, 百濟(馬韓)가 10萬戶에 人口 54萬 그리고 新羅(弁辰韓)가 12萬戶에 62萬名으로 推定된다. ③ 三韓時代의 4世紀後半의 우리나라 人口는 全體적으로 約 44萬戶에 人口 220萬이며, 이를 나라別로 보면 高句麗가 17萬戶에 人口 84萬, 百濟가 12.4萬戶에 人口 62.2萬 그리고 新羅가 14萬餘戶에 71萬餘名으로 推定된다. ④ 三國時代에 들어와 高句麗 全盛時(西紀 491年)의

우리나라 人口는 모두 47.9萬戶에 人口 239萬餘名으로 推定되며, 이를 나라別로 보면 高句麗가 21萬戶에 人口 105萬이며, 百濟가 14萬戶에 人口 71萬名 그리고 新羅가 16.3萬戶에 人口 81.3萬餘으로 推定된다. ⑤ 百濟 全盛時(西紀 554年)의 우리나라 人口는 모두 50萬戶에 人口 250萬으로 推定되며, 나라別로는 高句麗가 17.4萬戶에 人口 87萬이며 百濟가 15.2萬戶에 人口 76.2萬 그리고 新羅가 17.5萬戶에 人口 87.3萬으로 推定된다. ⑥ 新羅 全盛時(西紀 576年)인 三國時代의 우리나라 人口는 모두 50.4萬戶에 人口 252萬으로 推定되며, 나라別로는 高句麗의 17.3萬戶에 人口 86.3萬, 百濟의 15.2萬戶에 人口 76.2萬 그리고 新羅의 50.4萬戶에 人口 89.5萬으로 推算된다. ⑦ 統一新羅時(西紀 668年)의 우리나라 人口는 53.5萬戶에 人口 268萬으로 推定된다.

推定作業에 있어서 高麗地域의 경우는 基礎人口의 資料가 4個時期(BC 107, AD 107, AD 491, 및 AD 668)에 걸쳐 있었으며, 이들 時期間的 年平均增減率이 어느 程度 合理的인데서 必要한 年度의 人口推定은 前後年度間的 年平均增減率을 그대로 適用하였다. 百濟의 경우는 基礎人口 資料가 3個時期(AD 250, AD 554 및 AD 660)에 있었으며 이들 中間에 있는 必要한 年度의 戶口數는 亦是 兩年度間的 年平均增減率을 그대로 適用하였다. 新羅地域의 경우는 基礎人口資料가 西紀 576年의 한 時期밖에 없어서 이 時期以前에 있는 必要年度의 戶口數 推定에는 百濟의 이 時期 年平均增加率인 0.113%를 適用하였으며, 西紀 576年以後 西紀 668年 統一新羅時까지의 戶口數增加率에는 0.338%를 適用하였다. 西紀 576年以前時期의 推定에 0.113%의 增加率을 假定한 것은 紀元後 7世紀間的 우리나라 戶口數 增減率이 減少의 경우는 0.013~0.233%의 幅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增加의 경우는 0.113~0.200%의 幅에서 움직이고 있다. 增加率의 경우 이 幅은 同期間中 世界人口의 0.04~0.05%보다 높은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人口棲息條件과 이 時期 百濟의 比較的 順調로운 國家形成過程을 勘案할 때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全盛期에서 統一新羅期에 이르는 西紀 576~668年の

表 5. 우리나라 戶口數의 年度間比較  
Table 5. Comparison of population by period

時 期	西紀年度	戶 數		人 口 數		戶當口數
		實 數	年 平 均 增加率(%)	實 數	年 平 均 增加率(%)	
統一新羅時	668	535,448		2,677,238		5.0
肅宗4年 <sup>1)</sup>	1678	1,332,446	0.137	5,872,217	0.118	4.4
光武10年 <sup>1)</sup>	1906	2,742,263 <sup>2)</sup>	0.317	12,934,282 <sup>2)</sup>	0.347	4.7

1)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現象(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22輯), 1927.

2) 이 統計는 同年 10月 警務顧問部인 日本官憲에 의한 調査值로서 같은해 舊韓國政府가 調査한 1,381,493戶 및 5,793,976名 보다 倍가 넉을 程度로 舊韓政府의 調査에 甚한 洩落이 보인다.

92年間の 成長率을 0.338%로 假定한 것은 實際의 史料에 나와 있는 西紀 3世紀後半의 弁辰韓의 戶口數와 新羅全盛期(AD 576年)의 戶口數를 連結하여 그 成長率을 보면 年平均 0.657%라는 이 時期의 것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水準이며 이러한 높은 水準의 成長率을 全盛時에서 統一新羅로 이어지는 期間中の 國土擴張과 人口集中을 考慮하더라도 成長率의 幅이 크다(表 3 參照). 이러한 點에서 이 時期 高句麗 및 百濟의 戶口數 減少率인 -0.233% 및 -0.002%와 前記한 0.113%를 이 時期 新羅自體의 人口增加率로 看做하여 이들의 合인 0.338%를 이 時期 新羅의 戶口數成長率로 假定하였다.

그 結果의 特定時期別 우리나라의 推定戶口數는 前述한 바이며, 推定結果에 따른 우리나라의 古朝鮮時代부터 三國時代末 統一新羅期까지의 戶口數는 꾸준한 增加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成長率도 西紀 107~375年間的 年平均 0.137~0.145%, 西紀 375~554年間的 0.076~0.08%, 西紀 554~576年間的 0.026% 그리고 西紀 576~668年間的 0.066% 등으로 前述한 이 時期 世界 人口의 年平均增加率(0.04~5%)보다 多少 높은 水準에서 成長하고 있으나 이러한 成長率은 이 時期의 우리나라의 水準으로는 매우 妥當한 것이라 생각된다.

統一新羅時 우리나라 人口를 檢證하는 한 方法으로 이 時期의 戶口數를 李朝中葉 및 李朝末葉의 戶口數와 比較해 보면 表 5에 있어서와 같이 統一新羅時(西紀 668年)와 李朝 肅宗 4年(西

紀 1678年)間的 戶口數成長率 0.118%은 매우 妥當性이 높다.

## V. 結 言

7世紀以前 우리나라의 戶口에 관한 不過 얼마 안되는 史料를 통해서 當時의 우리나라 人口를 推定한다는 試圖는 그 自體가 虛無孟浪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既히 그러한 資料가 있고 보던 이의 分析을 통한 人口推定의 試圖 또한 眞僞에 關係없이 學問을 하는 立場에서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前記한 여러 史料의 人口統計學的 分析過程에서 ① 國內史料에 記載되어 있는 戶를 口로 看做하고 ② 新羅의 京中戶數를 全國戶數로 假定한 前提아래서의 論文展開는 史學者들의 頓躑을 살린지 모른다. 그러나 이 時代의 人口增加率을 勘案할 때 그러한 假定이 人口統計學上 매우 妥當한 根據를 가지고 있는 事實을 察할 附言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깊은 分析을 위해서는 이미 序에서 及한 바와 같이 人口와 관련된 時·空의 概念이 分明해야 하겠으나 먼 옛날에 있었던 事實을 이제 와서 再構成할 道理는 없기 때문에 이를 論外的 것으로 하더라도 ① 이 時期의 人口動態的 分析 특히 出生·死亡과 人口移動에 대한 考察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② 이러한 分析이 當時의 社會·經濟史의 背景과 맞물려서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